

내년부터 증권사 해외 송금업 가능

# ‘수수료 내려 거래 활성화’... 주식시장 활기 찾을까

정치권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주식 거래의 ‘이중과세’ 지적

中 거래세 인하로 거래금 증가 등  
면제·인하로 거래 활성화 사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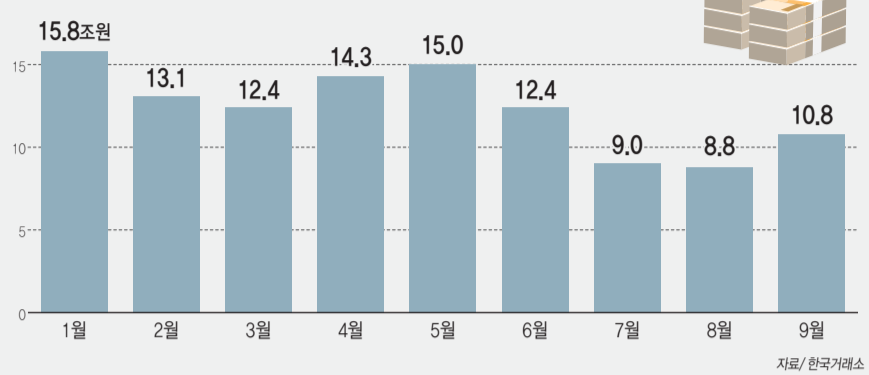
내년부터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의 각종 금융 거래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자본시장 투자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주식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정부는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 허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

주식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 (코스피·코스닥)



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제도 정비를 하고 금융기관 관련서비스 시행은 내년 1분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투자 시 증권사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환전이나 해외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송금서비스 이용 대가로 은행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일부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객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대기성 계좌에서도 환전이 가능토록 하고 증권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 비용이 감소하고, 편의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해외 투자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해외투자실 담당자는 “해외

주식은 투자도 잘 하면서 환율도 잘 따져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동안 환전은 거래은행 고시환율과 연계해서 거래해왔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송금업이 허용되면 증권사도 고객에게 우대환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해외주식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업계가 수 년 간 요구해온 ‘증권거래세’(최고 0.5%)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시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으로 투자 손실에도 수수료를 내야하고 수익을 냈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면서 자본시장 거래가 활성화된 국가의 사례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힘을 실는다. 실제 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하면서 3개월 간 거래대금이 69.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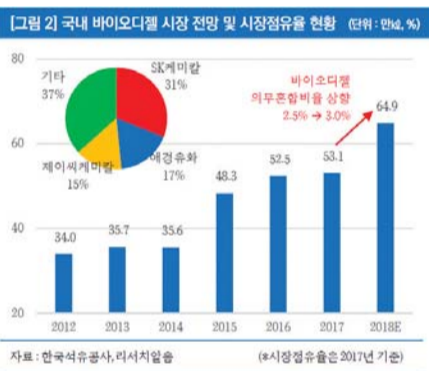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해 대만이 증권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0.15%)하면서 주식시장 활황을 이끌었던 사례 등은 조세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주식거래 시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 등은 평생 무료 이벤트를 연장해오면서 투자자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가 면제해주는 수수료는 0.015% 내외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의 부담이 사라져야 투자자들은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수수료 면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잡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바이오연료, 석유대체로 수혜

### 株라쿨라의 종목 바이오연료 생산업체 제이씨케미칼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유가의 기조적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7일 바이오연료 생산업체 ‘제이씨케미칼’에 주목해야 한다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원유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공급은 줄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이 감산 정책을 펴고 있는 데다 베니수엘라의 정국불안까지 겹치면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다”며 “중국의 미국산 원유수입 중단 방침과 더불어 미국이 대(對)이란 원유 수출제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불안정한 시장환경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이씨케미칼의 주력 사업인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최 연구원의 분석이다.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은 정부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은 2007년 0.5%를 시작으로 올해는 3%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최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 지역에서 차량용 연료의 5~7% 가량을 바이오디젤로 대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무혼합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유가 급등으로 국내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이 조기 상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폐식용유, 삼겹살 기름 등을 혼합한 바이오중유가 발전용 연료로 활용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2014년 이후 바이오중유 시범사업을 벌여온 정부는 지난달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했으며, 앞으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씨케미칼은 지난해 300억원 규모의 바이오중유 매출을 기록했으며, 향후 수요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계획대로 생산설비 증설이 완료되면 제이씨케미칼은 국내 최대의 바이오중유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밖에 올해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부산물 판매사업 역시 기대되는 분야다.

최 연구원은 “제이씨케미칼이 판매하고 있는 부산물 글리세린이 식물성 전분과 함께 100% 자연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에 따라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잡지기자

## 징검다리 연휴에 쉬어가기... 전국 2688가구 분양

### 주간분양 캘린더 이달 중순부터 본격 분양 나석 듯

10월 둘째 주도 개천절, 한글날 등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아파트 분양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2688가구가 분양한다. 서울에선 구로구 향동 ‘향동공공주택지구2·4단지(공공분양)’, 경기도에선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센트레빌’ 등이 공급된다. 지방에선 충북 청주시 운동동 ‘청주동남지구A4(공공임대), 제주 서귀포시 ‘제주동광리신화오션빌’ 등이 1순위 청약 을 받는다.

건본주택은 4개 사업장에서 문을 연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안양KCC스위첸(오피스텔)’,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부산 동구 좌천동 ‘부산항일동미래주더오션’,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3차두산위브’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10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아파트명
10.8(월)	접수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A4(공공임대) 2순위
	발표	경기	화성시	화성향남사랑으로 부영6단지(민간임대) 2순위
10.10(수)	접수	경기	고양시	고양행신2A4(행복주택)
	발표	경기	시흥시	시흥 장현 A4(행복주택)
	계약	경기	연천군	전국식미모닝파크3차 (민간임대) (~10/11)
	발표	경기	안양시	안양KCC스위첸 (~10/12)
10.11(목)	접수	경기	안양시	화성동탄2A63(공공임대) (~10/12)
	계약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A81(공공임대) (~10/12)
	발표	경기	고양시	고양행신2A4(행복주택)
10.12(금)	접수	경기	고양시	고양행신2A4(행복주택)
	계약	경기	고양시	고양행신2A4(행복주택)

사업진행 등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동산 114

연휴가 끝나고 10월 중순부터 건설사들의 분양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

남, 위례 등 유망지역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내년부터 암보험으로 요양병원비 보장

### 금감원 Q&A

Q. 얼마전 암 수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암보험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암보험으로 보장받기는 쉽지 않지만 2019년 1월부터는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의 경우에만 비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행위 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암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분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암 진단 후 입원치

료를 받았다면 ‘암의 직접치료’와 무관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암보험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의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면역력 강화치료, 암이나 암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등에 대한 치료비용은 보장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